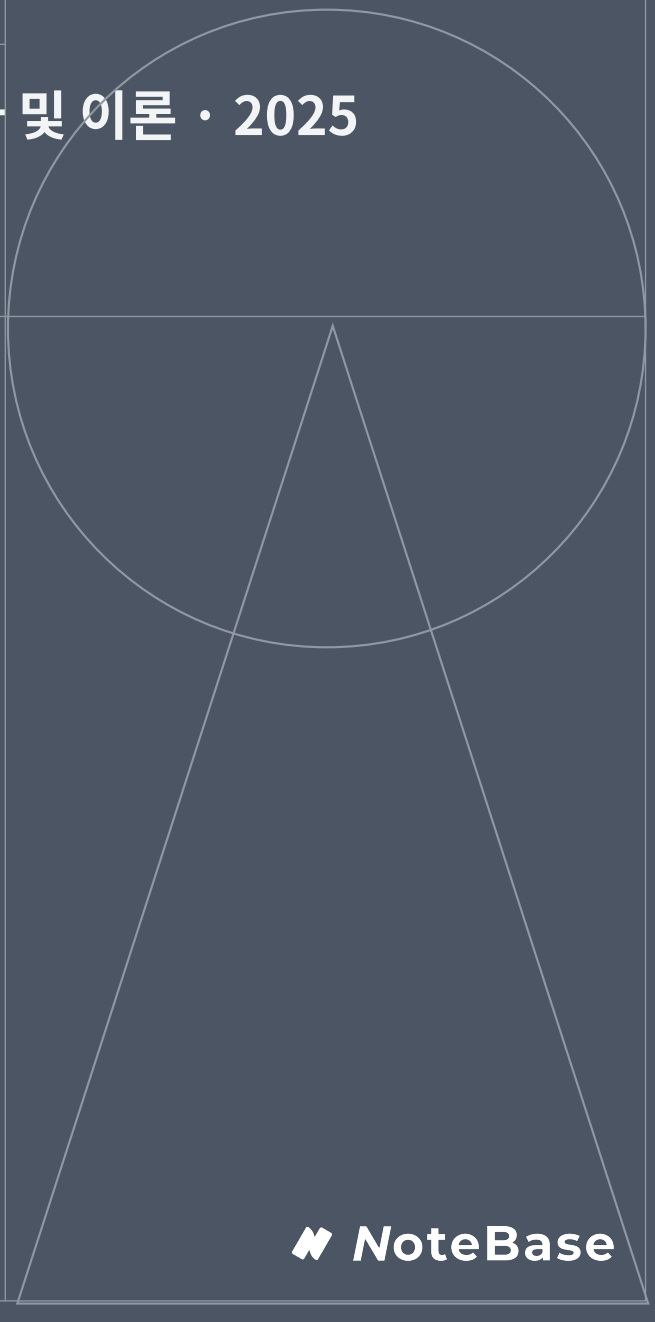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5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5

문 1. 조선왕릉의 원찰(願刹)이 아닌 것은?

① 조포사(造泡寺)

② 봉선사(奉先寺)

③ 신륵사(神勒寺)

④ 용주사(龍珠寺)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선왕릉과 관련된 사찰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원찰(願刹)'이란 왕실이 특정 능침(陵寢)을 위해 기도·천도·제향 등을 목적으로 지정한 사찰을 말한다. 조포사(造泡寺)는 능침 제향에 필요한 두부(豆腐)를 조달하기 위해 지정된 사찰로, 원찰과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핵심 정리

원찰 = 왕실 능침을 위해 기도·천도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정된 사찰(봉선사·신륵사·용주사 등이 대표 사례).
조포사 = 능침 제사에 쓸 두부를 만들어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사찰로, 원찰이 아니라 '조포 담당 사찰'이라는 별도 기능 명칭이다.

선지별 해설

① 조포사(造泡寺) — 원찰이 아니다[정답]. 조포사는 조선왕릉 제향에 필요한 두부를 조달하는 사찰에 붙인 기능적 명칭으로, 왕실의 기도·천도를 위한 원찰과는 구분된다.
② 봉선사(奉先寺) — 원찰이다. 세조의 능침인 광릉(光陵)을 위해 지정된 원찰이다.
③ 신륵사(神勒寺) — 원찰이다. 세종의 능침인 영릉(英陵)을 위해 지정된 원찰이다.
④ 용주사(龍珠寺) — 원찰이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장조)의 능침인 융릉(隆陵)을 위해 창건·지정한 원찰이다.

오답 포인트

봉선사·신륵사·용주사는 모두 특정 왕릉과 1대1로 대응되는 원찰이므로 선지로 빠지지 않는다. 조포사는 '절 이름'이 아니라 기능에 따른 호칭(能寺 유형 명칭)이라는 점을 놓치면 원찰로 오인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조포사'가 등장하면 원찰·능침수호사찰 관련 문제에서 항상 '아닌 것'에 해당한다. 반대로 봉선사(광릉)·신륵사(영릉)·용주사(융릉) 조합이 나오면 모두 원찰이라고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원찰 3대 사례: 봉선사(세조·광릉) / 신륵사(세종·영릉) / 용주사(장조·융릉). 조포사 = 두부 공급 사찰(원찰 아님). '造泡(조포)=두부 만든다'는 한자에서 기능을 바로 떠올린다.

NoteBase

문 2. 도산서원 절우사(節友社)의 명칭과 관련된 수종이 아닌 것은?

① 국화

② 매화

③ 연꽃

④ 대나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도산서원 절우사(節友社)에 심은 식물 목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절우사는 퇴계 이황이 도산서당에 조성한 화단으로, '절개 있는 벗'이라는 뜻의 네 식물을 선정해 심었다.

핵심 정리

절우사(節友社)의 절우(節友)는 '절개 있는 벗'을 뜻하며, 이황이 선정한 네 식물은 매화·국화·대나무·소나무이다. 이 네 가지는 세한삼우(歲寒三友, 소나무·대나무·매화)에 국화를 더한 구성으로, 모두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식물이다. 연꽃은 불교·유교 모두에서 청렴을 상징하지만 절우사 식물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국화 — 절우사에 포함된 식물이다. 절개와 은일(隱逸)을 상징하며 이황이 직접 심은 네 식물 중 하나이다. (O)
② 매화 — 절우사에 포함된 식물이다. 이황이 특히 아꼈던 식물로, 혹한 속에서 먼저 피는 절개의 상징이다. (O)
③ 연꽃 — 절우사에 포함되지 않는 식물이다. 연꽃은 '군자의 꽃'으로 불리지만, 절우사의 '절우' 개념과 다른 맥락(수생 식물, 연못)에 속하며 이황이 절우사에 선정한 목록에 없다. (X → 이것이 정답)
④ 대나무 — 절우사에 포함된 식물이다. 곧고 꺾이지 않는 절개의 상징으로 세한삼우에도 포함된다. (O)

오답 포인트

연꽃은 조선 유학자들이 즐겨 인용한 '애련설'(주돈이)의 소재로 유명하기 때문에, 절조·청렴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절우사는 육상 화단이고, 선정 식물은 매화·국화·대나무·소나무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연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우사 관련 문제는 항상 '매·국·죽·송' 네 가지가 맞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린다. 보기에 소나무가 없고 연꽃이 들어오면 연꽃이 오답 식물(정답 선지)임을 즉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절우사(節友社) = 매화·국화·대나무·소나무. 연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절개 있는 벗 넷: 매·국·죽·송'으로 묶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3. 모더니즘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댄 카일리(Dan Kiley)가 설계한 로즈 정원(Rose Garden)은 동양의 선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② 20세기 전반기의 추상미술과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을 받았다.

③ 플레처 스틸(Fletcher Steele)은 밀러 정원(Miller Garden)을 설계했다.

④ 로베르토 벌 막스(Roberto Burle Marx)는 도넬 정원(Donnell Garden)을 설계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모더니즘 조경의 사상적·예술적 배경과 대표 인물별 작품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인물과 작품, 영향 사조를 혼동하도록 선지가 설계되어 있어, 각 조경가의 대표작과 영향 배경을 정확히 연결해야 한다.

핵심 정리

모더니즘 조경(20세기 전반)은 큐비즘·초현실주의 등 추상미술과 바우하우스·르 코르뷔지에 등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 축대칭 정원에서 탈피하였다.
댄 카일리(Dan Kiley): 유럽 고전 기하학(르 노트르 전통)의 영향을 받은 미국 모더니즘 조경가. 대표작=밀러 정원(Miller Garden).
플레처 스틸(Fletcher Steele): 아르데코 및 초기 모더니즘 경향. 대표작=나움케그(Naumkeag).
로베르토 버를 마르크스(Roberto Burle Marx): 브라질 조경가, 열대식물과 유기적 추상 형태.
대표작=코파카바나 해변 보도(Copacabana Promenade) 등.
토마스 처치(Thomas Church):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창시자. 대표작=도넬 정원(Donnell Garden).

선지별 해설

① 오답. 선지의 핵심 오류는 카일리의 영향 배경을 '동양의 선사상'으로 서술한 점이다. 댄 카일리는 동양 선사상이 아니라 유럽 고전 기하학적 질서(르 노트르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틀린 표현: 동양의 선사상 → 올바른 표현: 유럽 고전 기하학적 질서(르 노트르 전통). 또한 카일리의 대표작은 로즈 정원이 아니라 밀러 정원(Miller Garden)이다.
② 정답. 모더니즘 조경은 20세기 전반기의 추상미술(큐비즘, 초현실주의)과 모더니즘 건축(바우하우스,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다. 이 설명은 모더니즘 조경의 배경으로 정확하다.
③ 오답. 밀러 정원(Miller Garden,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은 플레처 스틸이 아니라 댄 카일리의 대표작이다. 틀린 표현: 플레처 스틸 → 올바른 표현: 댄 카일리. 플레처 스틸의 대표작은 나움케그(Naumkeag)이다.
④ 오답. 도넬 정원(Donnell Garden, 캘리포니아)은 로베르토 버를 마르크스가 아니라 토마스 처치의 대표작이다. 틀린 표현: 로베르토 버를 마르크스 → 올바른 표현: 토마스 처치.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인물과 작품을 서로 교차 배치하는 전형적인 함정이다. 카일리=밀러 정원, 처치=도넬 정원을 역으로 연결해 놓았다. ①은 카일리의 영향 배경을 '동양 선사상'으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카일리는 유럽 고전 전통 계보에 속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더니즘 조경 문제에서 인물이 나오면 즉시 대표작과 영향 배경을 떠올린다. 밀러 정원이 등장하면 카일리, 도넬 정원이 등장하면 처치, 나움케그가 등장하면 스틸, 코파카바나 등 브라질 작품이 등장하면 버를 마르크스로 연결한다. '동양 선사상'은 어떤 모더니즘 조경가와도 연결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카일리 → 밀러 정원 / 처치 → 도넬 정원 / 스틸 → 나움케그 / 버를 마르크스 → 브라질(유기적 추상·열대식물)
모더니즘 조경의 사상적 배경: 추상미술(큐비즘·초현실주의) + 모더니즘 건축(바우하우스·기능주의)

NoteBase

문 4. 옴스테드(Olmsted)와 캘버트 보우(Calvert Vaux)가 제시한 그린스워드 플랜(Greensward plan)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체적 동선체계

② 차음·차폐를 위한 주변 식재

③ 격자형 도시 경관과 조화를 위한 축 설정

④ 넓고 쾌적한 마차 드라이브 코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옴스테드와 캘버트 보우가 1858년 센트럴파크 설계공모에 제출해 당선된 그린스워드 플랜(Greensward Plan)의 핵심 설계 개념을 알고, 실제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그린스워드 플랜의 대표 특징: (1) 입체적 동선체계 — 맨해튼 횡단 도로(transverse road)를 공원 지하로 통과시켜 보행자·마차·도시 교통을 수직으로 분리했다. (2) 차음·차폐를 위한 주변 식재 — 공원 경계부에 밀식(dense planting)을 배치해 도시의 소음과 시각적 혼잡을 차단했다. (3) 넓고 쾌적한 마차 드라이브 코스 — 당시 시민(특히 상류층)을 위한 carriage drive를 공원 내부에 길게 조성했다. 그린스워드 플랜은 맨해튼의 격자형(grid) 도시 구조와 '조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계적 격자에서 벗어나 픽처레스크(picturesque) 자연 경관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격자형 도시 경관과 조화를 위한 축을 설정했다는 설명은 계획 의도와 정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① 입체적 동선체계 [O] — 횡단도로를 지하 또는 지형 굴착으로 처리해 공원 내 동선과 완전히 분리한 것은 그린스워드 플랜의 혁신적 특징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차음·차폐를 위한 주변 식재 [O] — 공원 외곽부에 수목을 밀식해 도시 소음과 시각 차폐 효과를 도모했다. 옳은 설명이다.

③ 격자형 도시 경관과 조화를 위한 축 설정 [X] — 그린스워드 플랜은 맨해튼의 격자형 도시 경관과 조화하는 기하학적 축을 설정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의 핵심은 격자 도시 구조로부터 단절된 자연풍경식(픽처레스크) 공원을 만드는 것이었다. '격자 조화'는 계획 의도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넓고 쾌적한 마차 드라이브 코스 [O] — 공원 내에 carriage drive를 조성해 마차가 쾌적하게 순환하도록 했다.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번에서 '격자형 도시 경관과 조화'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센트럴파크는 맨해튼 격자 블록 한가운데 뚫려 있지만, 설계 의도는 격자와 조화가 아닌 픽처레스크 자연 경관으로 격자 도시를 '단절'하는 것이었다. '격자에 맞춘 기하학적 축 설정'은 르네상스·바로크식 정형 정원의 특징이며, 그린스워드 플랜과는 무관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그린스워드 플랜 관련 문항에서 '격자형', '기하학적 축', '대칭', '형식적 구성' 등의 단어가 들어간 선지는 자연풍경식 계획 원칙에 반하므로 오답 후보로 먼저 본다. 반면 입체 동선 분리, 주변 식재, 마차 드라이브는 실제 특징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암기 포인트

그린스워드 플랜(1858) 4대 특징: 입체적 동선체계(횡단도로 지하화) / 주변 차음·차폐 식재 / 마차 드라이브 코스 / 픽처레스크 자연 경관(격자 탈피). '격자 조화 축 설정'은 해당 없음을 세트로 외워 둔다.

NoteBase

문 5. <보기>에서 중세 유럽의 클로이스터 가든(cloister garde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스위스의 성 갈(St. Gall) 수도원에 소장된 정원 도면에 클로이스터 가든이 묘사되어 있다.
ㄴ. 대표 정원으로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Cortile del Belvedere)가 있다.
ㄷ. 출입구를 제외하고 가슴 높이의 벽이 설치되어 있다.
ㄹ. 정원의 중앙부에는 분천이 배치되거나 교목이 식재되기도 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중세 유럽 수도원 정원인 클로이스터 가든(cloister garden)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특징, 중심 요소를 개별 보기로 구분한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복수 선택형이므로 각 보기를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핵심 개념

클로이스터 가든: 중세 수도원 건물 내부의 사각형 안뜰로, 사방이 회랑(cloister·아케이드)으로 둘러싸인 정원. 기독교 수도원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묵상·약초 재배 등에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 기록은 820년경 스위스 성 갈(St. Gall) 수도원 평면도이며, 이 도면에 클로이스터 가든이 명확히 묘사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ㄱ. (옳다) 스위스 성 갈(St. Gall) 수도원의 820년경 평면도(일명 '성 갈 평면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세 정원 설계 기록으로, 클로이스터 가든이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ㄴ. (틀리다)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Cortile del Belvedere)는 15~16세기 바티칸에 조성된 르네상스 정원으로, 브라만테가 설계한 교황청 궁정 중정이다. 클로이스터 가든의 대표 정원이 아니라 르네상스 이탈리아 정원의 대표 사례이다.
ㄷ. (옳다) 클로이스터 가든을 에워싸는 회랑은 개구부(출입구)를 제외하고 가슴 높이 수준의 벽(낮은 석조 아케이드 벽)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 정원을 시각적으로 구획하면서도 채광과 조망을 허용하는 구조이다.
ㄹ. (옳다) 클로이스터 가든 중앙에는 우물이나 분수(분천)가 배치되거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교목이 식재된 사례가 다수 남아 있다. 분수는 생명수·정화를 상징하며, 교목은 에덴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기도 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이 가장 빈번한 오답 요인이다. 벨베데레(Belvedere)라는 단어가 주는 고전적 인상 때문에 중세 정원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는 르네상스 시대(15~16세기) 건축물이다. '클로이스터'는 수도원 회랑을 뜻하므로 대표 정원도 반드시 수도원 안뜰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클로이스터 가든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를 확인한다. 첫째, 기원 기록 → 성 갈 수도원 평면도(820년경). 둘째, 구조 → 회랑으로 둘러싸인 사각 안뜰, 출입구 외 가슴 높이 벽. 셋째, 중심 요소 → 분수(분천) 또는 상징적 교목. 르네상스·바로크 정원 이름이 섞여 있으면 시대를 먼저 걸러낸다.

암기 포인트

클로이스터 가든 3요소: 성 갈 평면도(기원) / 회랑+가슴 높이 벽(구조) / 분천·교목 중앙 배치(요소). 벨베데레는 르네상스, 클로이스터는 중세 수도원으로 짝을 지어 둔다.

NoteBase

문 6. 가브리엘 구에브르키앙(Gabriel Guevrekian)의 빌라 노에레(Villa Noailles)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랑스의 정형식 정원이 지닌 축과 자연의 대비를 표현했다.

② 기하학적 삼각형 부지에 모자이크 패턴의 포장을 구성했다.

③ 1925년 파리 박람회에서 선보인 '물과 빛의 정원(Garden of Water and Light)'을 현실화 한 작품이다.

④ 건축의 형태와 재료를 정원에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가브리엘 구에브르키앙(Gabriel Guevrekian)이 설계한 빌라 노에레(Villa Noailles) 정원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1925년 파리 박람회에서 선보인 '물과 빛의 정원'과의 관계, 큐비즘 양식의 조형 언어, 기하학적 삼각형 부지 구성, 건축과의 관계가 핵심 확인 사항이다. 발문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빌라 노에레 정원(프랑스 이에르, 1925~1927)은 구에브르키앙이 설계한 큐비즘(입체파) 정원이다. 삼각형 평면에 모자이크 타일·유리구슬·기하학적 화단을 배치하여 큐비즘 회화의 조형 언어를 정원으로 옮긴 작품이다. 구에브르키앙은 1925년 파리 장식예술박람회에서 '물과 빛의 정원'을 선보였고, 빌라 노에레 정원은 그 개념을 실제 부지에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건축물(로베르 말레-스티방스 설계)과 정원은 모두 모더니즘·큐비즘 어휘를 공유하되, 정원은 모자이크·식재·물 요소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형을 구사했으며, 건축의 동일한 재료를 정원에 그대로 반복 사용한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프랑스의 정형식 정원이 지닌 축과 자연의 대비를 표현했다'는 틀린 설명이다. 빌라 노에레 정원은 르노트르 양식의 정형식 정원이 아니라 큐비즘 현대 정원으로, 중심축을 따라 자연과 인공을 대비시키는 정형식 구도가 아니라 삼각형 부지의 기하학적 추상 패턴(모자이크·삼각형 화단)을 조형 원리로 삼는다. 따라서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축-자연 대비' → '큐비즘 기하학적 추상 구성'으로 고쳐야 옳다.
② O — '기하학적 삼각형 부지에 모자이크 패턴의 포장을 구성했다'는 빌라 노에레 정원의 대표적 특징으로 옳은 서술이다.
③ O — 구에브르키앙은 1925년 파리 장식예술박람회에서 '물과 빛의 정원(Garden of Water and Light)'을 출품했고, 빌라 노에레 정원은 그 개념을 실제 부지에 현실화한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옳은 서술이다.
④ X (가장 옳지 않은 것 → 정답) — '건축의 형태와 재료를 정원에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가 틀렸다. 정원과 건축(말레-스티방스 설계)은 큐비즘·모더니즘이라는 양식적 맥락을 공유하지만, 건축의 콘크리트·석재 등을 정원에 동일하게 반복 사용한 것이 아니다. 정원은 모자이크 타일·유리구슬·식재·반사 수면 등 정원 고유의 재료와 기법으로 구성되었다. '서로 긴밀한 관계'는 맞으나 '건축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 → '양식·조형 어휘를 공유했을 뿐 재료는 정원 고유의 것을 사용'으로 고쳐야 한다.

①과 ④ 중 왜 ④가 '가장' 옳지 않은가: ①은 빌라 노에레를 '큐비즘 현대 정원'이 아니라 '프랑스 정형식 정원'으로 잘못 범주화한 분류 오류여서, 빌라 노에레가 양식상 정형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틀렸음이 드러난다. 반면 ④는 정원의 재료가 건축 재료와 다르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사용'이라며 정반대로 단정하는 직접적 사실 오류로, '동일하게'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실과 어긋남이 명백하다. 즉 ①은 간접적(범주 오인)·④는 직접적(사실 정반대) 오류이므로, 사실과 가장 강하게 어긋나는 ④가 단일 정답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가 모두 틀린 서술이라 정답 선택이 헷갈릴 수 있다. ①은 빌라 노에레를 프랑스 전통 정형식 정원으로 오해하게 만든 함정이고, ④는 '동일하게(同一)' 한 단어가 핵심 오류어로, 양식적 연관성과 재료의 동일 사용을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두 선지를 가르는 기준은 오류의 직접성이다. ①은 '정형식 정원'이라는 범주를 잘못 붙인 분류 오류여서 양식 지식이 있어야 틀림이 보이지만, ④는 정원 재료가 건축 재료와 다르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사용'이라며 정반대로 단정하는 직접적 사실 오류다.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므로, 사실과 가장 강하게·직접적으로 어긋나는 ④('건축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를 정답으로 고른다. ③은 박람회 출품작(임시 설치)과 빌라 노에레 정원(실제 시공)이 별개이지만 개념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옳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에브르키앙 관련 문제에서는 삼각형 부지·모자이크·큐비즘·1925년 파리 박람회·물과 빛의 정원 키워드가 핵심이다. '건축 재료를 정원에 그대로 사용'처럼 지나치게 강한 동일성 주장이 나오면 오류 선지로 판단한다. 또한 이 정원은 프랑스 전통 정형식(르노트르 양식)의 계승이 아닌 큐비즘 현대 정원이므로 '정형식 정원의 축-자연 대비'식 서술도 오류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구에브르키앙 = 큐비즘 정원의 선구자. 빌라 노에레 정원 = 삼각형 + 모자이크 + 큐비즘 + 1925 파리박람회 '물과 빛의 정원' 개념 구현. 건축(말레-스티방스)과 양식 공유 O, 재료 동일 사용 X.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축-자연 대비 X.

NoteBase

문 7. 영국의 스투어헤드(Stourhead)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가이자 아마추어 조경가인 헨리 호어(Henry Hoare)가 정원 구상을 주도했다.

② 자연을 배회하는 길가메시(Gilgamesh) 영웅 서사시에 따라 구성되었다.

③ 신화 속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공 호숫가를 따라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다.

④ 정원 구성은 풍경화의 법칙에 따라 구성하되 클로드 로랭(Claude Lorrain)의 그림에 기초를 두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영국 스투어헤드(Stourhead) 정원의 설계 배경, 주도자, 구성 원리, 참조 서사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어떤 서사시를 모티프로 삼았는지가 핵심 변별 포인트다.

핵심 정리

스투어헤드 정원은 18세기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의 대표작이다. 은행가 헨리 호어 2세(Henry Hoare II)가 1740년대부터 조성을 주도했다. 인공 호수를 중심으로 신전·동굴(그로토)·비문·항아리 등의 건축 요소를 배치하여 방문자가 호수를 따라 산책하며 베르길리우스(Virgil)의 서사시 『아이네이스(Aeneid)』에 등장하는 신화 장면들을 순서대로 연상하도록 구성되었다. 정원의 공간 배치와 장면 구성은 클로드 로랭(Claude Lorrain)의 이탈리아 풍경화 기법에서 차용한 픽처레스크(picturesque) 원리를 따른다.

선지별 해설

① (O) 헨리 호어(Henry Hoare)는 영국 호어 은행(Hoare's Bank)의 은행가이자 아마추어 조경가로, 스투어헤드 정원 구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X) 스투어헤드는 메소포타미아 영웅 서사시인 『길가메시』가 아니라, 베르길리우스의 라틴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서사 구조의 모티프로 삼았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영국 18세기 풍경정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 틀린 설명이다.
③ (O) 인공 호숫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 『아이네이스』의 신화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로토·신전·비문 등이 배치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O) 스투어헤드는 클로드 로랭의 이탈리아 풍경화에서 구도와 빛의 처리 원칙을 도입하여 자연 풍경을 회화적으로 구성한 픽처레스크 정원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②번에서 '길가메시'라는 생소한 고유명사가 등장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스투어헤드의 서사 원천은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권인 『아이네이스』이며, 길가메시는 수메르·바빌로니아 문명의 서사시로 영국 정원 전통과 연결 고리가 없다. 고유명사가 익숙하지 않을수록 '어디 문명권 서사시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스투어헤드 관련 문제에서는 ① 설계 주도자(헨리 호어), ② 참조 서사시(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③ 공간 구성 방식(인공 호수 + 호숫가 산책로 + 신화 장면 연상 요소), ④ 회화적 기법(클로드 로랭 풍경화 원리) 네 가지를 축으로 확인한다. '길가메시'처럼 엉뚱한 문명권 서사시가 등장하면 즉시 X로 판정한다.

암기 포인트

스투어헤드 = 헨리 호어(은행가·아마추어 조경가) +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서사 구조 + 인공 호수 산책로 + 클로드 로랭 풍경화 기법. 이 네 가지를 세트로 외워 둔다.

NoteBase

문 8.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원 조성 기법은?

<보기>
산림, 경작지 등을 정원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대지의 경계선에 깊은 도랑을 파서 가축의 정원진입을 막고 어떠한 물리적 방해 없이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① 노트(knot)
② 미로(maze)
③ 하하(ha-ha)
④ 픽처레스크(picturesqu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영국 풍경식 정원에서 사용된 ha-ha 기법의 원리와 목적을 묻는 문항이다. 보기에 제시된 '도랑을 파서 가축 진입 차단 + 물리적 방해 없이 조망'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법을 식별해야 한다.

핵심 개념

하하(ha-ha): 정원 경계부에 한쪽 벽면을 수직으로 깎은 깊은 도랑(선큰 펜스)을 설치하는 기법이다. 가축이 도랑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도, 도랑이 지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 정원에서 바라볼 때 울타리나 담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정원과 외부의 경작지·산림이 시각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차경(借景) 효과를 얻는다.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landscape garden)에서 Charles Bridgeman, William Kent, Lancelot 'Capability' Brown 등이 즐겨 사용하였다.

노트(knot): 16~17세기 르네상스·튜더 시대 영국 정형식 정원에서 회양목 등의 관목을 매듭 모양(knot)으로 기하학적으로 배열한 화단 양식이다.

미로(maze): 생울타리나 담장으로 복잡한 길을 만들어 탈출이 어렵도록 설계한 정원 요소로, 오락·유희 목적으로 조성된다.

픽처레스크(picturesque): 18세기 영국에서 회화적 아름다움을 자연 풍경에 적용한 미학 개념·양식으로, 거칠고 불규칙한 자연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특정 물리적 시설 기법이 아니라 미학·설계 원리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노트(knot) — 오답. 노트는 관목을 매듭 형태로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화단 양식이다. 도랑을 파거나 조망을 확보하는 기법이 아니다.
② 미로(maze) — 오답. 미로는 생울타리로 복잡한 통로를 만드는 요소로 가축 차단·차경과는 관련이 없다.
③ 하하(ha-ha) — 정답. 대지 경계에 깊은 도랑을 파서 가축의 정원 진입을 막으면서 지면 위로 장애물이 드러나지 않아 물리적 방해 없이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보기의 설명 전체에 부합한다.
④ 픽처레스크(picturesque) — 오답. 픽처레스크는 미학적 설계 원리·사조이지, 도랑을 이용한 물리적 시설 기법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ha-ha와 픽처레스크는 함께 영국 풍경식 정원과 연관되어 혼동하기 쉽다. 픽처레스크는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라는 미학 원리이고, ha-ha는 '도랑이라는 물리적 구조물'이라는 차이를 기억한다. 또한 ha-ha의 핵심은 '차단 기능'과 '시각적 연속성'이 동시에 달성된다는 점으로, 이 두 기능이 보기에 모두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곧바로 판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기에 '도랑', '가축 차단', '물리적 방해 없이 조망' 세 단어가 함께 등장하면 즉시 ha-ha로 판단한다. 반대로 매듭·기하학 배열이면 knot, 통로·탈출이면 maze, 회화적·불규칙 자연미이면 picturesque로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ha-ha = 숨겨진 도랑(선큰 펜스) → 가축 차단 + 시야 무장애 → 정원과 외부 자연의 시각적 연속.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시설 기법으로 고정한다.

NoteBase

문 9. <보기>에서 메디치(Medici) 가문의 정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빌라 카레지(Villa Careggi)
ㄴ. 빌라 란테(Villa Lante)
ㄷ. 빌라 카스텔로(Villa Castello)
ㄹ. 빌라 피에졸레(Villa Fiesole)

①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Medici) 가문이 소유·조성한 빌라 정원을 다른 귀족·성직자 소유 빌라와 구별하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빌라 카레지(Villa Careggi): 코시모 데 메디치(Cosimo de' Medici)가 1457년경 건축가 미켈로초(Michelozzo)에게 의뢰해 개조한 피렌체 근교 별장이다. 메디치 가문의 가장 이른 시기 별장으로 인문주의 학자들이 모이는 플라톤 아카데미의 본거지였다.
빌라 란테(Villa Lante): 라치오 주 바냐이아(Bagnaia)에 위치하며 16세기 말 추기경 잠바라(Gambara)와 몬탈토(Montalto)가 조성한 정원이다. 자코모 다 비뇰라(Vignola)가 설계에 참여했으며 메디치 가문과는 무관하다.
빌라 카스텔로(Villa Castello): 코시모 1세(Cosimo I de' Medici)가 1538년경 조각가 겸 정원가 트리볼로(Tribolo)에게 설계를 의뢰한 메디치 가문 소유 정원이다. 축선형 이탈리아 정형식 정원의 전형으로 꼽힌다.
빌라 피에졸레(Villa Fiesole): 피렌체 외곽 피에솔레 언덕에 위치하며 코시모 데 메디치가 조성하고 로렌초 데 메디치(Lorenzo de' Medici)도 즐겨 사용한 메디치 가문 소유 별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빌라 카레지(Villa Careggi) — 메디치 가문 소유(O). 코시모 데 메디치가 미켈로초에게 개조를 의뢰한 별장으로, 메디치 가문의 대표적 정원 중 하나이다.
ㄴ. 빌라 란테(Villa Lante) — 메디치 가문 소유가 아님(X). 라치오 바냐이아 소재로 추기경 잠바라·몬탈토의 정원이다. 르네상스 말기~매너리즘 양식의 수경 정원으로 유명하지만 메디치와 관계없다.
ㄷ. 빌라 카스텔로(Villa Castello) — 메디치 가문 소유(O). 코시모 1세가 트리볼로에게 설계시킨 정형식 정원으로 메디치 가문 정원 중 가장 대규모로 조성되었다.
ㄹ. 빌라 피에졸레(Villa Fiesole) — 메디치 가문 소유(O). 피에솔레 언덕의 경사지를 활용한 테라스식 정원으로 메디치 가문이 직접 조성·사용하였다.
→ 메디치 가문 정원: ㄱ, ㄷ, ㄹ → ④

오답 포인트

빌라 란테(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걸작으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메디치 가문 정원으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빌라 란테는 교황청 추기경이 조성한 정원이며, 메디치 가문의 주요 빌라는 피렌체와 그 근교(피에솔레·카레지·카스텔로·포지오 아 카이아노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메디치 가문 빌라 정원을 묻는 문제에서는 피렌체 및 근교 소재 여부와 코시모·로렌초 데 메디치와의 직접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빌라 란테(바냐이아), 빌라 파르네세(카프라롤라), 빌라 데스테(티볼리)는 각각 다른 귀족·성직자 소유이므로 메디치 정원 목록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메디치 가문 4대 빌라 정원: 카레지(Careggi, 미켈로초) · 카스텔로(Castello, 트리볼로) · 피에졸레(Fiesole) · 포지오 아 카이아노(Poggio a Caiano). 빌라 란테는 비뇰라+잠바라 추기경으로 따로 짝지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10. <보기>에서 일본 에도시대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방 영주들이 넓은 저택에 회유식정원을 조성했다.
ㄴ. 빈리궁은사(浜離宮恩賜) 정원은 동경만의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수공간이 있다.
ㄷ. 육의원(六義園)에 오리 사냥터가 조성되었다.
ㄹ. 『작정기』에 회유식정원에 관한 조성법이 기록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일본 에도시대 조경의 주요 정원 특징과 문헌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회유식 정원의 성립 시기, 다이묘 정원의 대표 사례(하마리큐·육의원)의 특징 차이, 그리고 『작정기』가 속한 시대와 정원 양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핵심 정리

에도시대 다이묘(지방 영주)들은 산킨코타이(참근교대) 제도로 에도에 거주하면서 대규모 저택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정원들이 회유식(回遊式) 정원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하마리큐(浜離宮恩賜公園): 도쿄만(東京⌧)에 접한 다이묘 정원으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수지(潮入りの池)가 핵심 수경 요소이며, 오리 사냥터(鴨場)도 이 정원에 있다.
육의원(六義園, 리쿠기엔): 야나기사와 요시야스가 와카(和歌)의 세계관을 재현하여 조성한 회유식 다이묘 정원으로, 오리 사냥터와는 무관하다.
『작정기(作庭記)』: 헤이안 시대(11세기경) 후지와라 요리미치 계열에서 저술된 일본 최고(最古)의 정원 조성서로, 침전조(寢殿造) 정원—연못·섬 중심의 정원—의 조성 원리를 다룬다. 에도시대에 발달한 회유식 정원과는 시대와 양식이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O) 에도시대 지방 영주(다이묘)들은 에도의 넓은 저택 부지에 회유식 정원을 조성하였다. 산킨코타이 제도로 각 번의 다이묘가 에도에 대규모 저택을 두었고, 이 저택 정원들이 회유식 다이묘 정원의 전형이 되었다.
ㄴ. (O) 하마리큐(浜離宮恩賜) 정원은 도쿄만에 인접해 있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수지(潮入りの池)가 존재한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연못을 수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이 정원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ㄷ. (X) 오리 사냥터(鴨場)가 있는 것은 육의원이 아니라 하마리큐(浜離宮恩賜)이다. 육의원은 와카의 세계를 정원으로 재현한 곳으로, 오리 사냥터와는 관련이 없다.
ㄹ. (X) 『작정기』는 헤이안 시대(11세기)에 침전조 정원의 조성법을 기록한 문헌이다. 회유식 정원은 에도시대(17~19세기)에 성립·발전한 양식이므로, 『작정기』에 회유식 정원 조성법이 담겨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혼동은 하마리큐와 육의원의 특징을 바꿔 기억하는 것이다. 오리 사냥터와 조수지는 모두 하마리큐의 특징이고, 육의원은 와카(문학) 세계 재현이 핵심이다.
『작정기』는 헤이안 시대 문헌임을 기억해야 한다. 에도시대 정원을 묻는 문제에서 시대가 다른 문헌이 선지로 등장하면 시대 불일치를 먼저 점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 이름이 나오면 ①시대 ②양식(회유식/정토식/침전조식 등) ③핵심 특징을 세트로 대응한다. 문헌이 선지에 등장하면 그 문헌이 어느 시대·어느 정원 양식을 다루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하마리큐 = 조수지(潮入りの池) + 오리 사냥터(鴨場), 도쿄만 인접.
육의원 = 와카(和歌) 세계 재현, 야나기사와 요시야스 조성.
『작정기』 = 헤이안 시대, 침전조 정원(연못·섬 중심), 일본 최고(最古) 정원 조성서.
에도시대 다이묘 정원 = 회유식 정원의 전성기.

NoteBase

문 11. <보기>에서 고대 이집트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사르곤 2세(Sargon II)의 사르곤 궁전 수렵원(hunting park)에는 인공호수와 인공언덕이 조성되었다.
ㄴ. 주 축선을 중심으로 대칭적 공간 구성을 보인다.
ㄷ. 방형 또는 장방형의 화단 · 연못 · 울타리 등이 배치되었다.
ㄹ. 핫셉수트(Hatshepsut) 여왕의 장제신전(Mortuary Temple)은 테베(Thebes) 지역에 위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고대 이집트 조경의 특징(축선·대칭, 기하학적 구성)과 주요 유적(핫셉수트 장제신전 위치)을 메소포타미아 조경 요소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이집트 정원의 3대 특징: ① 주 축선을 중심으로 한 좌우 대칭 배치, ② 방형·장방형의 화단·연못·울타리 등 기하학적 구성, ③ 수목을 열식(列植)하여 그늘 조성.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신전(데이르 엘-바흐리)은 나일강 서안 테베(현 룩소르) 지역에 위치하며, 3단 테라스 구조로 조성된 이집트 조경의 대표 사례이다. 사르곤 2세(Sargon II)는 아시리아(메소포타미아)의 왕으로, 그의 수렵원(hunting park)은 이집트가 아닌 메소포타미아 조경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ㄱ. ☒ — 사르곤 2세의 사르곤 궁전 수렵원은 아시리아(메소포타미아)의 사례로, 이집트 조경이 아니다. 인공호수·인공언덕 조성 자체는 사실이지만, 발문의 '고대 이집트 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선택이다.
ㄴ. ◯ — 이집트 신전·정원은 주 축선(axis)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공간 구성이 기본 원리였다.
ㄷ. ◯ — 이집트 정원에서는 방형(정방형) 또는 장방형(직사각형) 형태의 연못, 화단, 울타리가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이는 이집트 벽화와 발굴 유적에서 확인된다.
ㄹ. ◯ — 핫셉수트(Hatshepsut) 여왕의 장제신전(Mortuary Temple)은 테베(Thebes) 지역, 현재의 룩소르 서안 데이르 엘-바흐리(Deir el-Bahri)에 위치한다. 3단 테라스식 구성으로 이집트 정원 건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ㄱ이 '이집트 조경'처럼 보이도록 출제된 함정이다. 사르곤 2세는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현 이라크 지역)의 왕이므로, 그의 수렵원은 메소포타미아 조경에 분류된다. '수렵원(hunting park)'이라는 키워드도 메소포타미아 조경의 특징이다. ①②는 ㄱ을 포함하므로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기에 '사르곤'이 등장하면 메소포타미아(아시리아)를 떠올린다. 이집트 조경 문제에서 사르곤을 섞어 놓으면 무조건 틀린 선지다. 핫셉수트 장제신전은 '테베(룩소르) + 테라스 구조'를 짝으로 기억한다.

암기 포인트

이집트 조경 = 축선 대칭 + 기하학적(방형·장방형) 화단·연못 + 열식 수목. 핫셉수트 장제신전 = 테베(룩소르) 서안 데이르 엘-바흐리, 3단 테라스. 사르곤 2세 수렵원 = 아시리아(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아님.

NoteBase

문 12. 중국 사자림(獅子林)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당을 가로지르는 곡절교 위에 비폭정이 자리잡고 있다.

② 지당 연안에 돌로 만든 배인 석방이 배치되었다.

③ 태호석을 이용해 만든 가산이 있다.

④ 화가 예찬은 정원의 경관을 담은 사자림도를 그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중국 쑤저우(소주) 사자림(獅子林)의 구성 요소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가산·석방·정자의 위치 관계와 예찬(倪瓚)의 사자림도까지 세부 내용을 묻는다.

핵심 개념

사자림은 원(元)나라 말기 1342년 쑤저우에 조성된 정원으로, 태호석(太湖石)으로 쌓은 복잡한 가산(假山)으로 유명하다. 가산은 사자 모양의 바위가 많다 하여 사자림이라 불렸다. 정원 내 지당(池塘) 연안에 석방(石舫·돌로 만든 배 형태의 건축물)이 있으며, 원말명초의 화가 예찬(倪瓚, 호 云林)이 이 정원의 경관을 그린 「사자림도(獅子林圖)」를 남겼다.

선지별 해설

① (X) 비폭정(飛瀑亭)은 지당을 가로지르는 곡절교 위가 아니라 가산(假山) 위에 위치한다. 곡절교 위의 정자와 혼동하기 쉬우나, 비폭정의 위치는 가산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O) 사자림의 지당 연안에는 돌로 만든 배 형태의 건축물인 석방(石舫)이 배치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O) 사자림은 쑤저우 태호(太湖)에서 나는 태호석을 이용해 만든 가산으로 유명하다. 옳은 설명이다.
④ (O) 원말명초의 화가 예찬(倪瓚)은 사자림의 경관을 담은 「사자림도」를 그렸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①번에서 '비폭정'과 '곡절교'를 조합한 서술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비폭정은 가산 위의 정자이다. 정원 내 여러 정자의 위치를 섞어 출제하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자림 관련 문항이 나오면 세 가지를 고정한다. 첫째, 가산은 태호석으로 만든다. 둘째, 석방은 지당 연안에 있다. 셋째, 비폭정은 가산 위에 있다(곡절교 위가 아니다). 예찬의 사자림도는 역사적 사실로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사자림 3종 세트: 태호석 가산 + 석방(지당 연안) + 예찬의 사자림도. 비폭정 위치 = 가산 위(곡절교 위 아님).

NoteBase

문 13. 중국의 원림 중 황가원림(皇家園林)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화원(頤和園)

② 승덕 피서산장(承德 避暑山莊)

③ 창랑정(滄浪亭)

④ 원명원(圓明園)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중국 원림을 황가원림(皇家園林)과 사가원림(私家園林)으로 분류하고, 대표 사례를 연결하는 능력을 묻는다.

핵심 정리

황가원림은 황제·황실이 조성한 규모가 큰 궁원으로, 이화원·원명원·승덕 피서산장·북해공원 등이 해당한다.
사가원림은 문인·관료·상인 등 개인이 소주(蘇州)·양주(揚州) 일대에 조성한 원림으로,
창랑정·졸정원·유원·사자림 등이 대표 사례이다.

선지별 해설

① 이화원(頤和園) — 청대 건륭제·서태후 시기에 조성된 대표적 황가원림이다. 황가원림이 맞으므로 오답.
② 승덕 피서산장(承德 避暑山莊) — 청대 황제의 여름 행궁으로 건설된 황가원림이다. 황가원림이 맞으므로 오답.
③ 창랑정(滄浪亭) — 북송 시대 소주에 조성된 사가원림이다. 소주 사대명원(四大名園) 중 하나로, 황실과 무관한 개인 원림이므로 황가원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원명원(圓明園) — 청대 황제들이 조성한 황가원림으로, '만원지원(萬園之園)'으로 불렸다. 황가원림이 맞으므로 오답.

오답 포인트

창랑정은 '정(亭)'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작은 정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소주의 대표적 사가원림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황가원림은 대부분 북경·열하(청더)에 위치하고, 소주 일대 원림은 거의 사가원림이라는 지리적 패턴을 함께 기억해 두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림 이름이 제시되면 ①위치(북경·청더=황가, 소주·양주=사가)와 ②조성 주체(황실=황가, 개인=사가)를 동시에 확인한다. 창랑정·졸정원·유원·사자림은 소주 사가원림 묶음으로 고정 암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황가원림 4대 대표: 이화원·원명원·승덕 피서산장·북해공원(모두 황실 조성, 북경·청더). 소주 사대명원(사가원림): 창랑정·졸정원·유원·사자림. 창랑정=사가원림이 핵심 구분선이다.

NoteBase

문 14. 『소쇄원 48영』에 표현된 수경(水景) 중 가파른 바위에 흐르는 물을 뜻하는 용어는?

① 복류전배(泆流傳盃)

② 위암전류(危巖展流)

③ 조담방욕(槽潭放浴)

④ 원규투류(垣竅透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쇄원 48영(瀟灑園 四十八詠)은 조선시대 양산보가 조성한 소쇄원을 48수의 시로 읊은 것으로, 각 영(詠)에는 원림의 수경(水景)·식생·시설물을 나타내는 고유 한자어가 붙어 있다. 이 문항은 한자 어구의 구성(부수·훈음)을 분석해 수경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매칭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핵심 정리

危巖(위암)=가파르고 위태로운 바위 / 展流(전류)=물이 흘러 펼쳐짐 → 위암전류(危巖展流)=가파른 바위면을 타고 흘러 퍼지는 물.
泆流(복류)=보(泆)처럼 고여 흐르는 물 / 傳盃(전배)=잔을 돌림 → 복류전배(泆流傳盃)=물 위에 잔을 띄워 돌리는 유상곡수 풍류.
槽潭(조담)=구유처럼 생긴 못 / 放浴(방욕)=목욕을 즐김 → 조담방욕(槽潭放浴)=못(담)에서 목욕을 즐기는 장면.
垣竅(원규)=담장의 구멍 / 透流(투류)=물이 구멍을 통과해 흐름 → 원규투류(垣竅透流)=담장 구멍을 통해 물이 스며드는 모습.

선지별 해설

① 복류전배(泆流傳盃): X — 泆流는 보(泆)에 고여 흐르는 물이고 傳盃는 잔 돌리기를 뜻하므로, 가파른 바위가 아닌 물가에서 술잔을 띄워 돌리는 풍류 장면을 묘사한 용어이다.
② 위암전류(危巖展流): O — 危巖(위험하고 가파른 바위)에 물이 展流(펼쳐 흐름)하는 모습을 담은 용어로, 발문의 '가파른 바위에 흐르는 물'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조담방욕(槽潭放浴): X — 槽潭은 구유 모양의 못이고 放浴은 목욕을 즐김이다. 바위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못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④ 원규투류(垣竅透流): X — 垣竅는 담장(垣)의 구멍(竅)이고 透流는 물이 그 구멍을 통과해 스며 흐르는 것이다. 가파른 바위와 무관하며, 담장과 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을 고르는 실수가 가장 잦다. 洑流(복류)에서 '流'가 있으니 물 흐름처럼 보이지만, 洑는 보(洑, 둑·물막이)를 뜻하고 傳盃는 잔 돌리기이므로 유상곡수(流觴曲水)적 풍류이지 바위 수경이 아니다. 또한 ④ 원규투류는 '透流'(흐름)가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垣竅(담장 구멍)라는 구조물 맥락이 핵심이므로 바위와 무관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쇄원 48영의 수경 용어는 한자 앞 두 글자(장소·지형)와 뒤 두 글자(물의 동작·행위)를 분리해 읽는다. 발문의 핵심어('가파른 바위'=危巖, '흐르는 물'=展流)를 먼저 한자로 변환한 뒤 선지와 대조하면 ②가 즉시 확정된다. 나머지 선지의 앞 두 글자(洑·槽·垣)가 모두 바위(巖·岩)가 아니므로 신속히 소거된다.

암기 포인트

소쇄원 48영 수경 4종 세트: 위암전류(危巖展流)=가파른 바위의 흐름 / 복류전배(洑流傳盃)=유상곡수 / 조담방욕(槽潭放浴)=못에서 목욕 / 원규투류(垣竅透流)=담장 구멍의 물. 危巖(위암)이 '가파른 바위'의 유일한 단서임을 공식처럼 외워 둔다.

NoteBase

문 1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명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주 계림

② 안동 만휴정 원림

③ 괴산 화양구곡

④ 진도 운림산방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과 다른 유형의 국가유산(사적 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선지에 제시된 네 곳 중 명승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고른다.

핵심 개념

명승(名勝)은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자연유산 유형이다. 사적(史跡)은 역사적 사건이나 시설과 관련된 문화유산 유형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명승과 사적은 근거 법령과 지정 기준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경주 계림(慶州 鷄林) — 신라 김씨의 시조 김알지 탄생 설화가 깃든 숲으로, 사적으로 지정된 역사유산이다. 명승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② 안동 만휴정 원림(安東 晩休亭 園林) — 조선시대 김계행이 경영한 별서 원림으로 폭포·계류·산림 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명승 제82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승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③ 괴산 화양구곡(槐山 華陽九曲) — 화양천을 따라 형성된 구곡 경관지로, 명승 제110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승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④ 진도 운림산방(珍島 雲林山房) — 남도 전통회화의 산실로 유명한 경관지로, 명승 제80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승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경주 계림은 역사적 유래(김알지 탄생 설화)가 잘 알려진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명승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림은 경관적 가치보다 역사적 가치로 지정된 사적이다. 명승은 경치의 아름다움이나 자연경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역사적 연고만으로는 명승이 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유명한 경승지가 나열될 때 각각의 지정 종목(명승·사적·천연기념물·명승 등)을 확인한다. 특히 경주 계림처럼 역사 유적지이지만 경관지로 오해하기 쉬운 곳은 지정 종목을 정확히 구별해 두어야 한다.
'자연유산법상 명승'은 자연경관 가치 중심이고, 역사·문화 연고지는 문화유산법상 사적으로 분류된다.

암기 포인트

경주 계림 = 사적(명승 아님). 안동 만휴정 원림 = 명승 82호. 괴산 화양구곡 = 명승 110호. 진도 운림산방 = 명승 80호. 명승 지정 목록에서 '계림'은 등장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6. 조선왕릉 중 능침의 형식·형태가 다른 하나는?

① 현릉(顯陵)

② 광릉(光陵)

③ 선릉(宣陵)

④ 영릉(寧陵)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조선왕릉의 능침 배치 형식(동원이강릉·동원상하릉·쌍릉·합장릉·단릉)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현릉·광릉·선릉은 모두 동원이강릉이고, 영릉(寧陵)만 동원상하릉으로 형식이 다르다.

핵심 개념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같은 능역 안에서 왕과 왕비의 봉분을 서로 다른 언덕(岡)에 각 1기씩 조성하고 정자각 1기를 공유하는 형식이다. 광릉(세조·정희왕후)이 효시이며, 이후 현릉(문종·현덕왕후)·선릉(성종·정현왕후) 등에 이어진다.
동원상하릉(同原上下陵): 같은 언덕 위에 왕릉을 위에, 왕비릉을 아래에 배치한 형식이다. 영릉(寧陵, 효종·인선왕후)이 조선왕릉 중 유일한 동원상하릉이다. 1659년 효종이 먼저 묻혔고, 1674년 인선왕후 능을 효종릉 아래에 조성하면서 이 형식이 탄생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현릉(顯陵) — 문종과 현덕왕후의 능. 정자각 앞에서 바라볼 때 왼쪽 언덕에 문종, 오른쪽 언덕에 현덕왕후를 배치한 동원이강릉이다. O(나머지 셋과 같은 형식).
② 광릉(光陵) — 세조와 정희왕후의 능. 조선왕릉 동원이강릉의 효시로, 봉분을 좌우 별개 언덕에 조성하였다. O(나머지 셋과 같은 형식).
③ 선릉(宣陵) — 성종과 정현왕후의 능. 역시 두 언덕에 각각의 봉분을 조성한 동원이강릉이다. 『국조오례의』 규정을 가장 충실히 따른 능으로 이후 왕릉 조영의 기준이 되었다. O(나머지 셋과 같은 형식).
④ 영릉(寧陵) — 효종과 인선왕후의 능. 같은 언덕 위에 효종릉을 상단에, 인선왕후릉을 하단에 배치한 동원상하릉(同原上下陵)이다. 나머지 세 능이 모두 동원이강릉인 것과 달리 형식·형태가 다르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영릉(寧陵)을 세종의 영릉(英陵, 합장릉)과 혼동하면 안 된다. 한자가 다르다. 세종 영릉은 英陵(영 英)이고 효종 영릉은 寧陵(영 寧)이다. 이 문제의 ④ 영릉(寧陵)은 효종의 능이며, 동원상하릉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동원이강릉과 동원상하릉 모두 정자각을 1기 공유하지만, 봉분의 위치가 '좌우 다른 언덕'인지 '같은 언덕의 위아래'인지가 결정적 차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왕릉 능침 형식 문제가 나오면 광릉·현릉·선릉(동원이강릉), 영릉(寧陵, 동원상하릉), 영릉(英陵, 합장릉)의 세 가지를 우선 구분한다. '형식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라면 나머지 셋의 공통 형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형식에서 벗어나는 능을 찾는다.

암기 포인트

동원이강릉 3형제: 광릉(효시) → 현릉 → 선릉. 동원상하릉 유일: 영릉(寧陵, 효종). 세종=英陵(합장), 효종=寧陵(상하).

NoteBase

문 17. 사찰 — 누(樓) — 전이방식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쌍계사 — 팔영루 — 누하진입

② 용주사 — 천보루 — 누하진입

③ 부석사 — 안양루 — 양측면진입

④ 봉정사 — 만세루 — 양측면진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국 사찰 누각(樓閣)의 전이방식—누하진입과 양측면진입—을 사찰·누각 이름과 함께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누하진입: 누각 하부(기둥과 기둥 사이의 개방 공간)를 통과하여 안마당으로 진입하는 방식. 부석사 안양루·봉정사 만세루·용주사 천보루가 대표 사례이다.
양측면진입: 누각 정면 하부를 통과하지 않고 좌우 측면 계단을 올라 누마루 위나 누 뒤편 마당으로 진입하는 방식. 쌍계사 팔영루가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쌍계사 – 팔영루 – 누하진입: 틀린 설명이다. 쌍계사 팔영루는 양측면진입 방식으로, 누각 하부를 통과하지 않고 좌우 측면으로 우회하여 진입한다.
② 용주사 – 천보루 – 누하진입: 옳은 설명이다. 용주사 천보루는 누 하부를 통과해 대웅보전 영역으로 진입하는 누하진입 방식이다.
③ 부석사 – 안양루 – 양측면진입: 틀린 설명이다. 부석사 안양루는 누하진입의 대표 사례로, 무량수전으로 가기 위해 안양루 하부를 통과해야 한다. 양측면진입이 아니다.
④ 봉정사 – 만세루 – 양측면진입: 틀린 설명이다. 봉정사 만세루도 누하진입 방식으로, 대웅전 마당으로 진입할 때 만세루 하부를 통과한다.

오답 포인트

부석사 안양루가 누하진입의 가장 유명한 사례이므로, 안양루를 '양측면진입'으로 바꿔 놓으면 쉽게 오답임을 알 수 있다(③). 쌍계사 팔영루를 누하진입으로 혼동하는 경우(①)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팔영루는 양측면진입임을 별도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찰-누각-전이방식 매칭 문제는 세 가지 짝을 모두 검토한다. 부석사 안양루·봉정사 만세루·용주사 천보루는 누하진입, 쌍계사 팔영루는 양측면진입으로 고정해 두고, 하나라도 전이방식이 뒤바뀐 선지는 즉시 제거한다.

암기 포인트

누하진입 3대 사찰: 부석사 안양루 / 봉정사 만세루 / 용주사 천보루. 양측면진입 대표: 쌍계사 팔영루.
'안양루=누하진입'을 기준점으로 삼아 나머지를 파생 암기한다.

NoteBase

문 18. 월지(月池)의 입수구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ㄱ자형으로 세 번 꺾인 수로가 석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석조는 물놀이가 가능한 형태로 2단으로 되어있다.

② 다듬은 돌로 축조된 전복과 비슷한 모양으로 입수구 양쪽 돌이 6개이고, 물이 나가는 꼬리 부분은 4개의 돌로 짜여져 있다.

③ 계류 위에 간결한 석교들이 여러 개 놓여 있으며 어정 밑에는 거대한 암석을 C자형으로 다듬어 샘물이 돌아 흐르도록 하였다.

④ '열상진원'이란 각자가 새겨진 샘에 정석(井石)을 놓고 그 주위에 판석을 깔아 샘물을 유입시켰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신라 월지(月池, 안압지)의 입수구 구조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입수구의 수로 형태, 석조 구조, 단수(段數)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월지 입수구는 ㄱ자형으로 세 번 꺾인 수로를 통해 물이 유입된다. 수로 끝에는 석조(石槽)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석조는 물놀이가 가능한 형태로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꺾임을 통해 유속을 줄이고 물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ㄱ자형으로 세 번 꺾인 수로가 석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석조는 물놀이가 가능한 형태로 2단으로 되어 있다. 월지 입수구의 구조적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전복과 비슷한 모양에 양쪽 돌 6개, 꼬리 부분 돌 4개라는 묘사는 월지 입수구의 특징이 아니다. 월지 입수구는 꺾인 수로와 2단 석조가 핵심이며, 이 선지의 묘사는 전혀 다른 유구를 서술한 것이다.
③ (X) 계류 위에 석교를 놓고 거대한 암석을 C자형으로 다듬어 샘물이 돌아 흐르도록 한 구조는 월지 입수구의 특징이 아니다.
④ (X) '열상진원(洌上眞源)'이라는 각자가 새겨진 샘에 정석(井石)을 놓고 판석을 깔아 샘물을 유입시켰다는 묘사는 경복궁 경내 수원 관련 구조물의 특징으로, 월지 입수구와는 다르다.

오답 포인트

②③④는 모두 다른 원지 또는 수원 시설의 특징을 월지 입수구인 것처럼 섞어 놓은 선지다. '전복 모양', 'C자형 암석', '열상진원 각자' 같은 구체적 키워드가 나오면 월지 입수구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월지 입수구를 묻는 문항이 나오면 '세 번 꺾임(ㄱ자형 수로) + 2단 석조'를 먼저 떠올린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포함된 선지가 정답이다. 꺾임 수로가 없거나 단수가 다르면 오답이다.

암기 포인트

월지 입수구 = ㄱ자형 세 번 꺾인 수로 → 2단 석조(물놀이 가능 형태). 꺾임으로 유속 감소 + 정화 기능.

NoteBase

문 19. 전통 조경시설의 종류 중 수경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석간

② 비구

③ 곡수거

④ 석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전통 조경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수경시설(水景施設)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수경시설은 물을 주 매체로 경관을 연출하는 시설이며, 석간·비구·곡수거가 대표적이다.

핵심 개념

수경시설(水景施設): 물의 흐름·낙하·고임 등을 이용해 경관을 조성하는 시설의 총칭으로, 계류·수로·분수 등이 포함된다.
석간(石澗): 돌 사이를 흘러내리는 계류 형태의 수경시설.
비구(飛溝): 물이 뿜어지거나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도랑 형태의 수경시설.
곡수거(曲水渠): 구불구불하게 굽은 수로로, 유상곡수(流觴曲水) 놀이 등에 사용된 수경시설.
석주(石柱): 돌기둥으로, 경계·표식·지지 등의 목적으로 세우는 석조 구조물이며 물과 무관하다.

선지별 해설

① 석간 — 수경시설이다(O). 돌 사이로 물이 흘러 계류 경관을 연출하는 시설로, 수경시설에 해당한다.
② 비구 — 수경시설이다(O). 물이 빠르게 흘러내리거나 뿜어지는 좁은 수로 형태로, 수경시설에 해당한다.
③ 곡수거 — 수경시설이다(O). 구불구불한 인공 수로로, 물의 흐름을 경관 요소로 활용하는 수경시설에 해당한다.
④ 석주 — 수경시설이 아니다(X). 석주는 돌기둥 형태의 석조물로, 물을 매체로 삼지 않으므로 수경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문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석'(石) 자가 들어간 시설이라도 수경시설일 수 있다(석간). 명칭만 보고 돌 관련 시설을 모두 비수경으로 판단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수경시설 여부는 '물이 경관의 주 매체인가'로 판단한다. 석주는 돌기둥 자체가 경관 요소이며 물의 흐름·낙하·고임과 무관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조경시설 분류 문제에서는 ①물을 매체로 삼는가(수경시설), ②돌·흙·식물 등을 매체로 삼는가(석조·지형·식재 시설)를 축으로 분류한다. 석간·비구·곡수거·못(지)·폭포는 수경시설군에 속하고, 석주·석등·석탑·화계 등은 비수경 시설군에 속한다.

암기 포인트

수경시설 대표 4종: 못(지·池) / 계류·석간(石澗) / 곡수거(曲水渠) / 비구(飛溝). 석주(石柱)는 석조 구조물군으로 수경시설이 아니다.

NoteBase

문 20. 달성 삼가헌 고택의 정원에 있는 별당의 이름은?

① 활래정(活來亭)

② 하엽정(荷葉亭)

③ 탁청재(濯淸齋)

④ 청암정(靑巖亭)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달성 삼가헌(三可軒) 고택의 원림 구성 요소 중 별당 정자의 명칭을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한국 전통 조경 유적에서 특정 장소와 건물 이름을 정확히 연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정리

달성 삼가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조선시대 고택으로, 1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 삼가헌 원림의 중심에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가에 하엽정(荷葉亭)이라는 별당 정자가 세워져 있다. '하엽(荷葉)'은 연꽃잎을 뜻하며, 연못의 연꽃과 어우러지는 정자의 경관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삼가헌 정원은 자연지형과 연못·정자를 결합한 조선 중후기 사대부 원림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선지별 해설

① 활래정(活來亭) — 오답. 활래정은 강원도 강릉 선교장의 연못가에 위치한 정자로, 삼가헌과는 무관하다. '활래(活來)'는 물이 활발히 흘러들어 온다는 뜻으로, 선교장 활래정과 소쇄원 광풍각·제월당 등 타 유적의 정자 이름과 혼동하기 쉽다.

② 하엽정(荷葉亭) — 정답. 달성 삼가헌 고택 원림의 연못가에 세워진 별당 정자이다. 연꽃잎을 뜻하는 이름으로, 연못의 연꽃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표현한다.

③ 탁청재(濯淸齋) — 오답. 탁청재는 경상북도 안동 등지에 있는 재실 명칭으로, 달성 삼가헌의 별당이 아니다.

④ 청암정(靑巖亭) — 오답. 청암정은 경상북도 봉화군 닭실마을(안동 권씨 세거지)에 있는 정자로, 큰 바위 위에 세워진 것으로 유명하다. 달성 삼가헌과는 다른 유적이다.

오답 포인트

활래정(선교장), 청암정(봉화 닭실마을), 탁청재(안동)는 모두 조선시대 유명 원림·재실의 이름이지만 달성 삼가헌과는 관계없다. 이처럼 유사한 시대·유형의 건물 명칭이 선지에 함께 제시될 때, 지명과 건물명의 쌍을 정확히 암기해 두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삼가헌 문항은 항상 '연못+연꽃잎 정자'라는 경관 구성을 단서로 삼는다. 선지에 '하엽(荷葉)'이 보이면 연못 연꽃 이미지와 즉시 연결한다. 반대로 활래정은 선교장, 청암정은 봉화 닭실마을이라는 짝을 함께 기억한다.

암기 포인트

달성 삼가헌 — 하엽정(荷葉亭, 연꽃잎 정자). 강릉 선교장 — 활래정(活來亭). 봉화 닭실마을 — 청암정(靑巖亭). 세 쌍을 세트로 외워 둔다.

NoteBase